

## 경계에 선 유대인 타자로서의 블룸\*

홍 덕 선

### I

『율리시스』의 주인공 리오폴드 블룸의 첫 등장은 다음과 같이 아침 식사 장면으로 시작된다.

리오폴드 블룸씨는 짐승과 새들의 내장을 맛있게 먹었다. 그는 진한 거위 내장 수프와, 호두맛이 나는 모래주머니, 속을 다져넣은 심장구이, 빵가루를 입혀 기름에 튀긴 얇게 썬 간장과, 기름에 튀긴 대구알을 좋아했다. 그 무엇보다 그는 지진 양의 콩팥을 제일 좋아했는데 그것은 입천장에 희미한 오줌냄새를 풍기는 특유한 맛을 주었다. (U 4.1-5)

이 인용문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단순한 문장구조는 블룸의 독특한 음식 취향을 한 눈에 알려주면서도 동시에 그의 특이한 개성을 돋보이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가 즐겨한다고 나열한 음식들은 사실상 일반인에게는 친숙하게 생각되기 힘든 특이한 것으로 “입천장에 희미한 오줌냄새를 풍기는 특유한 맛”을 제일 좋아한다는 그의 식성은 독자의 폭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한다. 또

---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1-A00078).

한 이 날 그가 들루가즈 정육점에서 “돼지 콩팥”을 구입하는 것을 보면 블룸이 좋아하는 “짐승과 새들의 내장”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작가 조이스는 블룸이란 인물이 현대의 “일반적인 인물”을 대변한다고 언명하였지만, 이 첫 대목에서부터 블룸은 평범한 소시민의 차원을 넘어서서 독특한 개성이 부여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식성은 블룸의 단순한 개인적 취향만이 아니라 유대인 블룸의 문화적 정체성을 밝혀주는 실마리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즉,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 문화 관습을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두 개의 말굽”을 지닌 돼지고기 음식을 금지한 유대인 문화 전통을 아침 식사부터 어기고 있어 유대인 문화를 등지고 사는 그의 변형된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헝가리계 유대인 혈통으로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블룸의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은 조이스 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1979년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열렸던 조이스 국제심포지엄에서 블룸이 인종적으로 유대인인가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에 얼마만큼 문화적으로 밀착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핵심 논제로 올랐다.<sup>1)</sup> 블룸의 인종적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은 『율리시스』의 중심 주제 중의 하나이어서, 이 국제심포지엄 이후에도 이에 관한 논의는 최근까지 계속 진행되어왔다. 이런 논의의 성과는 무엇보다 블룸의 혈통에 관한 사실적인 사항들, 특히 20세기 전환기 아일랜드에 거주했던 유대인의 상황을 밝혀내는 사회적 연구에 의존하여 블룸의 인종적인 특성을 밝혀내는 연구 성과를 가져왔으며, 이런 사실적인 배경연구를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발전하였다.

『율리시스』에서 블룸의 유대인 정체성 문제가 제기하는 중요성은 무엇보다 가톨릭/민족주의가 팽배하던 사회에서 유대인 이민자 2세라는 소수민의 타자를 주인공으로 설정된 특이성에 있다. 조이스가 젊은 나이에 고국을 떠나 유럽에서 유랑생활을 하며 한 개의 국가와 지역성을 초월하여 세계보편주의자 예술가로 활동을 하면서도 유럽의 아일랜드인으로서 느꼈을 소수민의 타자의식이 그대로 『율리시스』의 블룸에게로 전향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가 조이스나 주인공 블룸 모두 이질문화의 경계선에 선 인물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율리

1) 취리히에서 열렸던 조이스 국제심포지엄의 내용은 몇 년 후 *The Seventh of Joyce*, ed. Bernard Benstock (Bloomington: Indiana UP, 1982)로 출판되었다.

시스』는 부성(父性), 방랑, 고향으로의 귀환이라는 『오디세이』 식의 중심 주제 외에 인종(유대인/아일랜드인) 간의 또는 섹슈얼리티(남성/여성) 간의 이질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주체/타자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여성스런 남성”(U 15.1798-99)으로서의 유대인 블룸의 정체성은 『율리시스』에서 조이스가 제기하는 타자성을 해명하는데 핵심이 된다.

본 논문은 블룸의 유대인 특성을 이제까지 논의되어 온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이 유대인 특성이 작품 해석에 가져온 새로운 의미를 해명하는데 초점이 있다. 특히 본 논문은 두 문화의 경계선에 선 블룸의 이중적이면서도 모호한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려고 한다.

## II

조이스는 『율리시스』를 써나가면서 소설의 주인공 블룸이 유대인이란 사실을 주변 친구들에게 자주 언급하였다(Budgen 59, 65, 76, 268; Ellmann 483). 조이스 자신의 언급과 함께 조이스 학자들은 블룸의 유대인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더블린 사회에서 소외된 블룸의 상황은 그의 유대인이라는 특성 때문으로 해석되어왔다. 유대인 혈통의 이민자 블룸은 가톨릭과 민족주의 운동이 팽배한 아일랜드 사회에서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형적인 타자로 구현되었다는 해석이다. 물론 조이스 학자들은 블룸이 이민자 2세로써 철저한 유대인이기 보다는 아일랜드에 동화된 귀화 이민자라는 점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블룸 자신이 「키클롭스」(“Cyclops”)에서 민족주의자 시티즌과 논박을 벌이면서 자신의 국적이 “아일랜드”라고 강조하듯이, 블룸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아일랜드인임을 명확히 한다. 그렇지만 그 자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블룸은 더블린 사람들에게 유대인으로 간주된다. 「키클롭스」에서 그는 반유대주의자 시티즌에 의해 “이교도들의 새 사도”(U 12.1489)라는 별명과 함께 “아일랜드의 새 메시아”(U 12.1542)라는 조롱을 받는가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헝가리의 어느 지방 출신의 변절한 유대인”(U 12.1635)으로 경멸받는다. 더블린 사회에서 고립된 그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대인 특성을 다시금 재발견하는 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점을 조이스 학자들은 작품의 중요한 주제로 주목한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해석에 도전하여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블룸이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얼마만큼 유대인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에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작품에서 언급된 텍스트 내용에 의존하여 블룸이 유대인의 인종적 범주와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는 인물이라고 반박한다. 아마도 이런 문제 제기를 일으킨 초기 비평가로 애덤즈(Robert Martin Adams)를 들 수 있겠는데, 애덤즈는 블룸에게서 “자신을 유대인으로 또는 과거에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의식”(103)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블룸은 그리피스의 반유대주의에 무지하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정통 유대인 루벤 J. 도드를 “더러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차별주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독자들은 블룸에게서 “자신의 동료 유대인에 대해 동료의식의 결핍”을 느끼게 하며, “사실상 블룸은 요술램프 유대인”이라고 결론짓는다(106).

마찬가지로 스타인버그(Erwin R. Steinberg)는 작품 내에서 발견되는 사실만을 충실하게 증시하며 애덤즈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우선 인종학적인 측면에서 블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스타인버그는 주장한다. 그의 주장이 명시하듯, 블룸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유대인이라는 범주에 들기는 힘들다. 블룸은 1866년 유대인 아버지와 아일랜드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유대인에 대한 탈무드의 기준에 따르면 다른 인종간의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블룸처럼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경우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sup>2)</sup> 단지 유대인과 타 인종간의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의식에 따라 유대교를 받아들여야만 한다(Steinberg 28). 그러나 블룸의 경우를 보면, 블룸의 어머니는 신교도이며, 아버지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1865년 신교도로 개종하였다(U 17.1636-40). 더블린에서 태어난 블룸은 신교도로 세례를 받았고(U 17.542-46), 1888년 몰리와 결혼을 하면서 가톨릭교로 다시 개종하였으며(U 17.1636-40), 현재 그의 신앙은 불가지론에 가깝다. 왜냐하면 블룸은 현재 가톨릭 성당에서 성체 배령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성체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성체변화 가톨릭 교리를 믿지도 않는다. 가톨릭 종교를 세속적인 모임으로 격하시키는가 하면(U 5.362-4) 미사를 현실의 고통을 완화시켜

2) 심지어 블룸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 아버지 루돌프 비라그의 유대인 혈통을 살펴보면 독일-오스트리아계와 헝가리계가 결합된 것이어서 블룸의 아버지 쪽 혈통도 절대적으로 유대인이라는 확증을 가질 수 없다(Stanzel 621).

주는 일종의 진통제 내지는 마취제로 간주한다(U 5.367-8). 또한 죽음이나 사후 세계에 대한 블룸의 생각 역시 영혼의 초월이 아니라 육체의 물질적인 소멸과 순환을 믿는다(U 6.776-82).

특히 할례는 유대인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례인데, 신교도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히 블룸은 태어나면서 할례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우시카」(“Nausicaa”) 에피소드에서 블룸이 자위를 한 이후 내적독백 기법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다. “들러붙었군. 포피가 뒤로 안 벗겨졌네. 떼어내는 게 낫겠군”(U 13.979-80). 이러한 사실에서 블룸은 아직까지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유대인들이 13살에 치루는 “성년의식”(bar mitzvah, U 15.1624)에 대한 언급이 작품에서 없는 것으로 보아 또한 그의 출생 상황으로 판단하건대 그런 의식이 치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식을 겪었으면 블룸은 유대교의 내용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지만 실제로 블룸의 유대교 관습에 대한 지식은 너무 부족하고 부정확하다는 것을 모든 비평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블룸은 죽음에 대해서도 유대인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하데스」(“Hades”)에서 알 수 있듯이 블룸은 자신의 묘지를 위해 글래스네빈 공동묘지의 한 곳을 이미 구입해두었다. “나의 것은 저쪽 핑글라스 쪽에, 내가 사놓은 땅”(U 6.862). 그 공동묘지에는 패디 디그넬과 파넬이 묻혀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은 신교도와 가톨릭교도들에게 허용된 묘지임이 명백하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교도인만을 위한 묘지를 따로 구입하는 데, 실제로 더블린의 유대인들은 벨리버그(Ballybough)와 돌핀즌 반(Dolphin’s Barn) 두 곳의 묘지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Steinberg 29). 블룸이 유대교 묘지가 아니라 비유대교인 묘지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 스스로 자신이 정통 유대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스타인버그의 말처럼 블룸은 “출생, 세례, 할례, 성인식, 개종, 결혼, 계획을 세워 둔 장례” 모든 것이 유대인의 관례에서 벗어나 있다(29).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블룸은 정통 유대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블룸은 정통 유대인의 관례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 및 전통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다는 점에서 유대주의에 대한 문화적 유대성도 높지 않게 평가할 수가 없다. 그의 히브리어 수준은 초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으며(U 17.729-30) 시오니즘 애국가도 첫 두 줄밖에 암기하지 못한다(U 17.761-64).

그는 유대교의 관습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노출시킨다. 예를 들어 정통 유대인들이 아침 기도 때에 목과 왼팔에 걸치는 띠 테필림(tephilim, U 13.1157)을 문설주에 거는 메주자(mezuzah)로 혼동하는가 하면(Gifford 401), 유월절에 먹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감실에 올려놓는 빵과 혼동한다. 더군다나 이 논문의 맨 처음에서 지적했듯이, 돼지 콩팥을 아침식사료 맛있게 먹는 등, 블룸은 유대인의 관습을 희화화시키는 불경스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그만큼 그와 유대인 관습과의 거리감을 잘 말해주는 예가 된다. 시오니즘에 대한 블룸의 비전 역시 극히 비판적이다.

조이스는 블룸이 유대인이라는 점을 여러 통로를 통해 강조하였지만 사실상 텍스트 속에서는 이와 대립되는 사실들을 흘려 버렸다. 더구나 조이스는 작품에서도 블룸의 입을 통해 그가 유대인임을 인정하지 않게 만든다. 「에우마이오스」(“Eumaeus”) 에피소드에서 블룸은 스티븐에게 바니 키어넨 술집에서 있었던 시티즌과의 언쟁을 들려주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유대인 정체성을 부인한다.

그[시티즌]는 나를 열면 목소리로 유대인이라 부르는 거야. 모욕적으로. 그래서 나는 분명한 사실을 조금도 탈선함이 없이 너석에게 말해 주었지. 그대의 신, 내 말은 그리스도 말이야. 그도 유대인이었고 그의 가족도 모두 나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라 말이야. 실제 난 그렇지 않는지만. (U 16.1082-85)

뿐만 아니라 그는 집에 돌아와 부엌에서 스티븐과 야밤의 대화를 나누면서도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그[블룸]는 유대인이라고 그[스티븐]가 생각한다고 그[블룸]는 생각한 반면, 그[블룸]는 그렇지 않음을 그[블룸]가 알고 있다고 그[스티븐]는 알고 있음을 그[블룸]가 알고 있었다”(U 17.530-31). 매우 복잡한 복문으로 구성된 이 문장의 뜻은 스티븐은 블룸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블룸은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복잡한 구문을 통해 그의 유대인 정체성을 타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쉽지 않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여하튼 블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된다.

스타인버그의 세밀한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블룸이 정통 유대인이기는커녕 세속화된 유대인의 범주에도 포함될 수 없다고 한다면,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은 블룸의 유대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조이스는 왜 블룸이 유대인 특성을 주변 친구들에게 언급하였으며 또한 작품에서도 블룸이 끈질기게 자

신의 유대인 정체성의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스타인버그는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추측을 제안한다. 첫째는, 조이스가 트리에스테에서 『율리시스』를 쓰는 동안 친구로 사귀었던 그 도시의 유대인들이 대부분 블룸처럼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유럽문화에 동화된 유대인 이주자들이라는 것이다(54-55). 특히 블룸이란 인물의 원래 모형으로 삼았던 트리에스테의 이탈리아 스베보(Italo Svevo)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Ellmann 827; Grada 24). 스베보는 유대인 혈통을 갖고 태어났지만 유대인 전통에 엄격하지 않았던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이미 유대인 문화와 거리를 두고 지냈으며, 33살에 결혼을 하면서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유럽문화에 동화된 인물이었다. 이처럼 유럽문화에 동화된 유대인 이민자와의 교류를 통해 조이스는 정통 유대교의 관습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였으며 유대인의 전형성을 물려받았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조이스는 잘못된 지식을 은근히 밀어 넣어 독자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도록 이끄는 서술전략을 곧잘 사용하였는데, 블룸의 유대인성도 이런 서술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조이스는 “신뢰할 수 없는 화자”(the unreliable narrator)를 『더블린 사람들』에서부터 『율리시스』에 이르기까지 계속 활용하여 일종의 아이러니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시도하였던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조이스 학자들은 블룸을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한편 스타인버그의 주장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를 다시 논박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레빗(Morton P. Levitt)은 조이스가 블룸이란 주인공을 유대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작가 자신이 유럽의 외진 도시에서 경험했던 “고통받는 자로서 그리고 국외자로서의” 유대인에 대한 “은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25, 226). 마찬가지로 문맥으로 오프리-셰프스(Ofri-Scheps)는 “동화된 인물의 상징”이면서도 “소외된 현대인의 은유”라고 해석한다(565). 리즈봄(Marilyn Reizbaum)은 작품에 드러난 블룸이 “유대인이면서도 비유대인”이라는 양가적 모호성이 오히려 조이스의 숨은 의도임을 해명한다. 리즈봄은 조이스가 재현한 블룸의 “여성적인 남성”의 특징이 유대인을 여성화시키는 반유대주의 편견을 해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에서 이런 양가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230-2). 아마도 스타인버그의 주장을 가장 훌륭히 되받아친 연구서는 데이비슨(Neil R. Davison)의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유대인 정체성의 구성』(1996)일 것이다. 이 저서는 조이스의 어린 시절부터 『율리시스』를 저술하기까지 작가의 전기적, 사회적 자료들을 세밀

히 살펴가면서 유대인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갔으며, 그 다양한 의식들이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한 연구서이다. 비평가들의 대단한 호평을 받은 이 저서에서 데이비슨은 “내면적으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외면적으로는 유대인성을 벗어버린 비유대인적 유대인”(185)의 모습을 조이스는 스베보를 비롯한 트리에스테의 동화된 유대인 친구들에게서 발견하였으며, 이 이중적인 모습을 블룸에게서 다시금 구현시켰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데이비슨은 최근의 논문에서 블룸의 유대인성 문제를 탈식민주의 문맥에서 살펴 보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스타인버그가 던진, 블룸이 유대인으로 판명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이스가 인종적, 종교적, 그리고 아마도 지적인 측면에서 유대인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이런 인식을 블룸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투영시켰는지”(Davison 2002, 693-4)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초점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 측면에서 근대적 국가를 아직 성취하지 못한 유대인 민족의 독자적 영역을 탐색하는 블룸의 정체성 모색은 바로 영국 제국의 식민지 주체로서 “조이스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근대적 아일랜드 정체성”(695) 모색의 반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다른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율리시즈』를 해석하는 비평가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예를 들어, 블룸은 “자신의 조국이 영국 제국주의의 희생물로 주변화된 상태 속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중적으로 주변화된 자신의 위상을 유난히 의식하는 아일랜드인”(Cheng 6)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블룸의 이중적으로 주변화된 정체성이 갖는 탈식민주의적 중요성을 말해준다.

블룸의 유대인 정체성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의는 결국 블룸이 “비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양가적인 특성으로 귀납된다. 텍스트의 사실적인 측면에서 그를 정통 유대인이라고 정의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유대인성에 대한 의식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다. 그는 아일랜드에 동화된 유대인이면서도 아일랜드 사회에서 동일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변부 존재이다. 조이스는 이처럼 블룸의 다면체적인 성격에 유대인 정체성의 불투명한 모호성을 함께 투영시켰다. 조이스가 벗전(Frank Budgen)에게 언급한 오디세우스의 “완벽한 다면체적 인물”(15)은 블룸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그의 유대인 정체성까지도 명확한 정의 내리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블룸의 유대인/비유대인의 양가적 정체성은 등장인물의 단일한 정체성을 부



정하는 조이스에게 좋은 책략이 된다. 아일랜드인/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의 경계에 선 블룸의 양가성은 동시에 비아일랜드인/비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의 모호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즉, 그는 아일랜드에 동화된 비유대인이지만 또한 그에게 남아 있는 유대인적 특성은 그를 비아일랜드인의 기능으로 작동케 한다. 그리고 아일랜드인/비아일랜드인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블룸의 기능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와 영국 제국주의의 폭력적 권력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이미 조이스 학자들이 『율리시스』의 정치적 의미를 해명하는 작업에서 밝혔듯이 조이스는 아일랜드 민족의 정체성 모색에서 아일랜드 민족주의와 영국 제국주의를 모두 해체하는 관점을 유지해왔다. 마찬가지로 블룸의 유대인/비유대인, 아일랜드인/비아일랜드인이란 정체성의 양가성도 영국 제국주의만이 아니라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이 내포한 제국주의적 권력의 폭력성을 폭로하는 장치가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키클롭스」에서 벌어지는 블룸과 시티즌과의 대립이다.

바나 키어난 술집에서 벌어지는 「키클롭스」에피소드는 전통적으로 근시안적인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의 반유대주의적 편협성과 블룸의 평화주의자적인 보편주의의 대립으로 해석되어왔다. 그리고 조이스의 인본주의적 시각은 패러디를 통해 민족주의 대변자 시티즌의 폭력성과 편협성을 비판하면서도 블룸의 보편주의적 자유주의 제스처를 동시에 희화화시키는 다소 모호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중심 논지로 이어왔다. 이런 논지의 배경에는 식민지 현실에서 아일랜드 민족이 모색할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정치적 의미가 담겨있다. 시티즌의 과거 아일랜드 영웅들을 성인처럼 추존하는 신화창조 작업은 19세기 말 예이츠와 그레고리 부인 중심으로 벌어졌던 켈트문화의 재부활이라는 민족주의적 역사주의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대 영웅의 역사를 복원하려는 영국계 아일랜드인의 역사인식은 유럽적인 합리적 근대성을 추구하는 조이스에게 현실과의 괴리만이 아니라 아일랜드의 미래 정체성을 담지해주는 대안이 될 수 없었다. 역사와 신화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드는 과거 회귀론자들에게 대해 리얼리스트 조이스는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를 은유로 사용하여 과대망상적이며 반유대주의적인 시티즌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서도 「키클롭스」의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온순하며 자제력이 강한 블룸을 등장시켜 그가 처음으로 불 같은 용기를 내어 시티즌에게 맹렬하게 대항하는 점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블룸은 아일랜드에 동화된 시민이면서도 비아일랜드

적인 유대인의 태도에 의해 술집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될 당한다. 시티즌이 재현하는 아일랜드의 고유성은 민족주의자를 성인으로 승화시키는 신화 창조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적 혁명단의 피닉스 공원 사건으로 처형대에 오른 조 브래디(Joe Brady)이다. 무적혁명단은 아일랜드 총독으로 새로 임명된 프레드릭 카벤디스와 그의 부관 토머스 헨리 버크를 1882년 피닉스 공원 입구에서 암살했으며, 그때 브래디는 주범으로 잡혀 1883년 교수형을 당했다(Gifford 94, 141). 마침 사형제도가 화제로 오르자 술집의 대화는 조 브래디의 사형 당하던 장면으로 옮겨진다.

-극형에 있어서 억제적 효과를 갖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 엘프가 말한다.

-그게 뭐대? 조가 말한다.

-교수 당하는 불쌍한 비역쟁이의 연장이지, 엘프가 말한다.

-그래? 조가 말한다.

-틀림없어, 엘프가 말한다. 그건 킬메인업에서였는데 사람들이 무적단 조 브래디를 교수형에 처했을 때 간수장한테서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린 뒤에 목을 베었을 때 고놈이 마치 부지깽이처럼 그들 면전에 뺨뺨하게 서 있었다고 내게 알려주었어.

-누군가 말했듯이, 지배적 정열은 죽음에서 강하다네, 조가 말한다.

-그건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블룸이 말한다. 그건 단지 자연 현상에 불과하지, 알겠소, 왜냐하면 그 원인은 ...

그리고 나서 그는 현상과 과학 및 이런 현상, 저런 현상에 관해 발음하기 힘든 어구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

그런고로 물론 시티즌은 순간의 말을 단지 기다리고만 있었는지라 그리하여 그는 무적단 및 옛 수비대 그리고 67년의 용사들 및 98사건에 대하여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에 관하여 스스로 허풍을 떨기 시작했나니 ... (U 12.455-481).

술집에 모인 사람들은 범죄자의 처형장면을 화제로 올리다가 점차 영국지배에 저항하여 목숨을 내걸은 민족주의자 조 브래디의 처형장면으로 집중된다. 특히하게도 브래디는 처형당한 후에도 그의 성기가 부지깽이처럼 뺨뺨이 섰다는 소문을 뒤에 남겼다. 브래디의 성기가 죽음을 맞이하고서도 끈게 발기한 현상을 설명하는 "지배적 정열"이란 본래 성적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술집의 조는 이를 민족주의자의 고귀한 희생정신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말을 받아 이내 시

티즌은 브래디의 죽음을 “옛 수비대,” “67년의 용사들,” “98사건” 등 다른 민족주의 혁명가들의 이름과 동열에 놓으며 이들을 칭송하기 시작한다. 시티즌이 언급하는 이들은 피니언 운동가들로 영국지배에 대한 독립 운동가들이다. 따라서 조 브래디의 우뚝 솟은 남성 성기는 술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영국 제국의 억압 앞에서 굽히지 않는 불굴의 힘과 독립의지를 대변하며 숭앙의 대상이 된다.

이들이 죽은 희생자를 신화적 인물로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오직 블룸만이 유일하게 브래디의 현상을 자연과학적 이론으로 설명을 하려고 들면서 김을 빼려고 한다. 위의 구절에서 인용하지 않은 부분(U 12.468-79)은 블룸이 제기하는 자연과학적 설명을 모방한 패러디이다. 블룸의 행동이 술집의 상황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돌출된 엉뚱한 짓임을 이 회화적인 패러디가 잘 말해준다. 시티즌과 같은 민족주의자들에게 블룸식의 설명은 그야말로 불경스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티즌과 블룸은 그 논점에 관해, 저쪽 아버 언덕 너머 저승으로 간 시어즈 형제들과 울프 톤 및 로버트 에메트 그리고 너의 조국을 위하여 죽다, 사라 커런에 관한 토미 무어의 탄주(彈奏) 그리고 그녀는 조국과 멀리 떨어져 있네 등에 관해 논쟁했다. 그리고 블룸은 물론 때려 눕혀라 독한 시가를 피우며 번지르르한 얼굴로 허세를 부렸다. (U 12.498-512)

시티즌은 자신의 논점을 더욱 발전시켜 “시어즈 형제,” “울프 톤,” “로버트 에메트” 등 제국에 대하여 독립운동을 벌이다 처형장으로 사라졌던 민족주의자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불굴의 유언(에메트의 “너의 조국을 위하여 죽다”), 안타까운 사랑의 로맨스(에메트의 약혼녀 사라 커런과의 사랑을 토머스 무어의 낭만적 시구 “그녀는 조국과 멀리 떨어져 있네”와 대비)를 나열한다. 이런 나열은 민족주의자들의 개인적 희생을 낭만화시키는 시티즌의 신화창조 작업의 일환이다. 그런데도 블룸은 여전히 “독한 시가를 피우며” 냉정한 태도로 의학상의 이론을 빌려(“허세”) 설명하려고 든다. 그는 죽은 애국자들을 숭앙하는 일종의 의식에 참여하기는 커녕 존경의 표시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오직 자연현상”으로만 설명하려드는 블룸의 행동은 시티즌이 정치적으로 신성시하는 상징을 격하시키고 훼손시키는 것이다. 블룸이 시티즌의 관점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처럼 시티즌 역시 블룸의 관점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티즌과 블룸은 계속 “논점에 관해” 논박을 벌인다. 자연히 시티즌을 지지하는 술집의 사람들로부터 블룸은 눈총과 따돌림을 받

게 되며, 결국에는 아일랜드의 적으로 취급되어 버린다.

-사자(死者)들을 추모합시다, 시티즌이 파인트 잔을 들어올리며 불륨을 뺏히 쳐다보면서 말한다.

-그래, 그래, 조가 말한다.

-당신은 나의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륨이 말한다. 내가 뜻하는 바는 ...

-“신 페인!” 시티즌이 말한다. “신페인 암하인!”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는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가 증오하는 적들은 우리 앞에. (U 12.519-24)

시티즌은 독립운동을 벌이다 죽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오직 우리들만으로!”(Ourselves alone!)라는 뜻의 게일어로 건배를 제창하여 술집의 동료들을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 끌어 모은다. 술집의 다른 동료들은 이에 적극 호응하지만 불륨만은 여전히 이를 거부한다. 술집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불륨만이 술이 아닌 일반 음료수를 들고 있으며, 술집에 모인 동료들에게 술 한 잔 내지 않는 인색함으로 남의 눈총을 받는 처지였는데, 이제 시티즌의 건배 제의에도 응하지 않는 불륨은 그야말로 미운 오리새끼가 되었다. 마침내 친구/적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을 적용하는 시티즌에게 불륨은 일종의 적으로 간주된다. 비록 불륨이 시티즌과 그 동료들이 증오하는 영국인은 아닐지라도 민족주의 운동가들을 성인으로 승화시키는 신화창조에 동조하지 않는 불륨에게서 이들은 아일랜드인이라는 동질감을 발견할 수가 없다. 자연히 불륨은 이 아일랜드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이방인이 된다. 마침내 시티즌에게 불륨의 아일랜드인 정체성은 의심받게 된다.

불륨은 존 와이즈와 거둬거둬 말하면서, 감갈암울진흙빛의 오만상을 띠고 아주 흥분한 채, 그의 늙은 자두 눈알을 계속 굴리고 있었다.

-박해, 그는 말한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 민족들 간의 민족적 혐오를 영구화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나 자네는 민족이 무슨 뜻인지 아나? 존 와이즈가 말한다.

-그럼, 불륨이 말한다.

-그게 뭔데? 존 와이즈가 말한다.

-민족? 불륨이 말한다. 민족이란 같은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이지.

-하느님 맙소사, 그러면, 만일 그렇다면 나도 지난 5년 동안을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민족이군, 네드가 소리내어 웃으면서 말한다.

그런고로 물론 모두들 블룸을 비롯자 그는 비롯음을 일소하려고 애를 쓰면서 말한다.

- 혹은 역시 다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 그건 내 경우에 합당한 말이야, 조가 말한다.
- 실례지만 당신의 국적은 뭐요? 시티즌이 말한다.
- 아일랜드, 블룸이 말한다. 나는 여기서 태어났소. 아일랜드요.

시티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그의 목구멍으로부터 가래침을 모아, 그러고는 젠장, 그는 레드뱅크의 그 굴 같은 가래침을 바로 구석에다 몸 밖으로 내뱉었다. (U 12.1414-33)

블룸 자신도 이미 술집의 동료들에게서 외톨이로 따돌림을 받고 있음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어 오만상을 찌푸리고 흥분해 있다. 차분한 성격의 블룸은 극도로 흥분하여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 자신이 부당하게 폄박받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다. 그렇지만 이미 동일한 아일랜드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동료들에 의해 그는 민족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요구당하며 블룸의 국적이 무엇인지를 정면으로 질문 당한다. 그리고 그의 포괄적이며 모호한 민족 개념은 동료들이 생각하는 아일랜드 민족의 범주와의 거리감을 더욱 노출시킬 뿐이다. 자신도 아일랜드인이라는 블룸의 암묵적인 항거에 시티즌은 “굴 같은 가래침”을 뱉으며 경멸한다. 이런 상황에서 블룸의 보다 더 노골적인 항거는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도 역시 한 종족에 속해요 … 미움을 받으며 박해를 당하고 있지. 지금도 역시.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시각에.”(U 12.1467-68) 흥미롭게도 여기서 블룸이 언급하는 자신이 속한 “한 종족”이란 박해받는 유대인을 강하게 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블룸은 바로 이어 이렇게 말한다. “강탈당하고 … 약탈당하고, 모욕당하고, 박해 당한 채, 정당하게 우리에게 속하는 것을 빼앗고 있는 거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 노예나 가축처럼 모로코에서 경매로 팔리고 있던 말이오”(U 12.1470-72). 블룸 스스로 아일랜드인이라는 주장을 떠나 술집 동료들의 의심을 하는 바대로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조이스는 『율리시스』에서 더블린을 떠도는 블룸의 방랑을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병행구조로 삼고 있지만 또한 블룸의 방랑을 “방랑하는 유대인”의 전설에 대한 암시로 여러 곳에서 유포시켰다. 이 전설상의 방랑하는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로 인해 세상을 영원히 방랑하도록 저주를 받았다. 블룸 역시 아들을 잃고, 아내의 불륜을 목전에 둔 채 오쟁이진 남편으로 저주의 고통을

깊어진 채 정신적인 방황을 한다. 한편 조이스는 방랑하는 유대인의 전설을 통해 기독교 유럽문명 사회에서 거부되고 박해받는 유대인 타자의 역사적 원형을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블룸은 자신을 반기지 않는 아일랜드의 반유대주의 시선 앞에서 끊임없이 방랑하는 유대인의 박해받는 모습을 제시하였다. 지금 「키클롭스」의 장면에서 블룸이 박해받는 모습으로 자신을 내세울 때 그의 정체성 의식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자의식이다. 물론 박해받는 민족으로서 유대인 외에 아일랜드인도 포함된다는 점을 조이스는 놓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율리시스』에서 조이스가 “[이스라엘과 아일랜드] 두 민족의 서사시”(Letters I, 146)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은 아일랜드인과 유대인 모두 박해받는 민족으로서의 공통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제국으로부터 박해받는 아일랜드 민족의 상황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키클롭스」에서 블룸이 유대인으로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에게 이중으로 박대를 당하는 상황은 아이러니를 풍겨준다. 그야말로 블룸은 이중으로 박해받는 주변부 인물이다.

「키클롭스」에서 블룸이 시티즌과 그 동료로부터 이방인으로 따돌림 당하며 소외당하는 것을 쉬피겔(Michael Spiegel)은 문화 일반의 희생양 제의로 해석해간다. 쉬피겔은 지라르(Rene Girard)의 희생양 이론을 차용하여 블룸을 더블린 공동체 문화의 희생양으로 해석한다. 지라르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 문화는 공동체의 본질상 언제나 “희생양을 만드는 메카니즘”을 작동시킨다(76). 각 공동체마다 그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합일된 단일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공동체의 소수민족을 희생양으로 삼는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때 희생양으로 처벌받는 소수민족은 공동체의 대다수와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며, 차이의 부재가 공동체의 문화적 순수성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수민족이 다민족 문화 철저한 차이를 보인다면 그는 이방인으로 취급되지만, 문화의 동질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배제시켜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소수민족이 된다. 마찬가지로 「키클롭스」에서 동화된 아일랜드인이면서도 민족주의자들의 일치된 문화적 신화창조를 거부하는 블룸을 이방인이 아닌 희생양으로 세워나간다고 쉬피겔은 설명한다.

「키클롭스」의 사실주의 서술자인 일인칭 화자는 문예부흥운동의 역사편찬 과정에서 그런 희생을 민족주의자의 신화 창조 방식으로 설명하면서도 은폐되

는 실제의 폭력을 그려나간다. 이 에피소드에서 시티즌의 기획은 블룸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바니 키어난 술집 내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주의자의 신화창조에 기원을 둔, 또한 그 신화창조에 의해 촉진된, 희생양 만들기 과정을 반복한다. 그런 희생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폭력적 불일치를 생성하기 위해 블룸의 통일성 요구-“아일랜드, 블룸이 말한다. 나는 여기서 태어났소. 아일랜드요.”(U 12.1431)-가 아일랜드 문화적 통합성에 실제적인 위협을 대변한다는 점을 시티즌은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야만 한다. 블룸의 역할은 자신이 아일랜드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당연시하는 일이어서 이를 아무 저항 없이 수용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아일랜드 공동체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 이러한 적대적 위치들을 받아들인다. (86)

시티즌이 민족주의적 아일랜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그는 이를 방해하는 블룸을 술집의 다른 사람들과 구분시켜나간다. 블룸이 주장하는 보편적 사랑은 시티즌이 주장하는 기획까지 포괄하는 것이어서 시티즌은 자신과 블룸과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그를 희생양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블룸이 아일랜드인이라고 언명하며 술집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공동체 일원임을 주장하지만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티즌은 블룸을 “유대인”으로 내몬다는 것이 쉬피겔의 해석이다.

쉬피겔의 해석에 따르면 블룸은 동화된 아일랜드인이지만 술집의 사람들은 그를 비아일랜드인, 즉 유대인으로 배제한다. 그의 해석은 블룸이 지닌 유대인 정체성의 모호성을 잘 뒷받침해주는 예가 된다. 쉬피겔의 지적처럼 블룸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에게 철저한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문화적 차이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또한 그들과 동일시될 수 있을 만큼의 문화적 일체감도 지니지 않은 중간자적 경계선의 인물이다. 그는 아일랜드인이면서도 비아일랜드인이며, 동화된 유대인이면서도 아일랜드인과 구별되는 유대인이다. 그는 인종과 문화의 경계선에 위치하며 정통성의 독점을 무너뜨리는 주변부의 존재이다.

### III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은 실체가 아닌 “상상의” 구성물이다. 마찬가지로 인종

역시 생물학적 실체가 아닌 인위적인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점이 블룸의 유대인 정체성 논의에서 명백해진다. 왜냐하면 블룸의 유대인 정체성에 의문을 던진 스타인버그의 주장처럼 블룸의 생물학적 혈통은 정통 유대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제기한 유대인 정통성의 문제는 내심 모든 인종의 정통성 문제에 해당된다. 타인종간의 결혼으로 태어난 후손들의 인종은 갈수록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블룸의 혈통을 거슬러 추적해간 연구에 따르면 블룸의 할머니의 유대인 혈통도 의문시된다고 할 때, 그 3세에 해당하는 블룸의 유대인 혈통은 모호해지게 된다. 그런 면에서 『율리시스』에서 모호하게 제시된 블룸의 유대인 혈통 문제는 조이스의 부정확한 유대인 지식에서 나온 산물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집요하게 사실성에 충실했던 조이스이지만 그의 해체적인 기질은 블룸의 혈통적인 모호성을 텍스트상에 산재시킨 것이다.

따라서 블룸의 유대인 정체성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보다는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 문화적 차원의 접근이란 단순히 블룸이 얼마만큼 유대인 관습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 관습을 얼마만큼 지켜나가는지를 수치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블룸이 유대인 의식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으며 그의 이런 인식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풀어나가는 일이다. 실제로 블룸의 유대인적 문화 지식과 습관은 그다지 출중해 보이지 않았지만 더블린이 보여주는 가톨릭/민족주의 이념의 장에서 그의 유대인 정체성 인식은 너무나 두드러져 보인다. 이처럼 블룸은 아일랜드에 동화된 유대인으로 유대인/비유대인, 아일랜드인/비아일랜드인의 불투명한 다면체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두 인종과 두 문화의 경계선에 위치하며 양자 모두의 세계를 넘나드는 존재이다.

트리에스테의 한 시민 대학에서 강연한 「성인과 현인의 섬 아일랜드」(“Ireland, Isle of Saints and Sages”)에서 조이스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타락한 아일랜드의 현실을 소개하면서 인종 차이에 따른 역사 설명을 거부하고 대신 인종의 혼합의 필연성과 이에 의한 생산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아일랜드의 역사가 침략과 이민의 역사를 통해 이 나라는 “가장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들어간 거대한 혼합체”가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혼합체 속에서 순수하고 순결하게 남아 있을 하나의 줄기만을 찾는 일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CW 165). 민족 문화가 순수성의 환상에 뿌리박을 때 박해와 폭력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조이스는 이 강연을 통해 잘 드러내 주었다.



인종과 문화의 순수성을 고집하며 타 인종을 비난하는 인종차별주의에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조이스의 시선은 그대로 『율리시스』의 동화된 유대인 주인공 블룸에게로 녹아들어 있다. 유럽에서 일종의 예술가적 망명생활을 해가며 여러 문화들이 중첩되는 양상을 직접 체험한 조이스는 『율리시스』에서 인종과 문화의 경계선에 위치한 블룸을 통해 문명의 새로운 의미 생성을 제시하고 있다.

(성균관대)

## 인용문헌

- Adams, Robert Martin. *Surface and Symbol: The Consistency of James Joyce's Ulysses*. New York: Oxford UP, 1962.
-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Bloomington: Indiana UP, 1960.
- Cheng, Vincent J.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P, 1995.
- Davidson, Neil R. *James Joyce, Ulysses, and the Construction of Jewish Identity: Culture, Biography, and "the Jew" in Modernist Europe*. Cambridge: Cambridge UP, 1996.
- \_\_\_\_\_. "Why Bloom Is Not *Frum*, or Jewishness and Postcolonialism in *Ulysses*." *JJQ* 39.4 (Summer 2002): 679-716.
- Ellmann, Richard. *Ulysses on the Liffey*. London: Faber and Faber, 1972.
- \_\_\_\_\_. *James Joyce*. 전은경 옮김. 서울: 책세상, 2002.
- Epstein, Edmund L. "Joyce and Judaism." *The Seventh of Joyce*. Ed. Bernard Benstock. Bloomington: Indiana UP, 1982. 221-4.
- Gifford, Don, and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Rev. ed.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8.
- Grada, Cormac O. "Lost in Little Jerusalem: Leopold Bloom and Irish Jewry."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27.4 (Summer 2004): 17-26.
- Joyce, James.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59.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Ed. Stuart Gilbert. New York: Viking, 1957.
- \_\_\_\_\_. *Ulysses*. The Corrected Text. Vintage, 1986. 김종건 옮김. 서울: 생각의 나무, 2007.
- Levitt, Morton P. "Family of Bloom." *New Light on Joyce from the Dublin Symposium*. Ed. Fritz Senn. Bloomington: Indiana UP, 1972. 141-48.
- \_\_\_\_\_. "The Humanity of Bloom, The Jewishness of Joyce." *The Seventh of Joyce*. 225-8.
- Ofre-Scheps, Dorith. "Intervenor's Questions on 'Quasisensations of Concealed

Identities'(U 17.782)." *JJQ* 26.4 (Summer 1989): 561-72.

Reizbaum, Marilyn. "The Jewish Connection, Cont'd." *The Seventh of Joyce*. 229-37.

Spiegel, Michael. "'The Most Precious Victim': Joyce's 'Cyclops' and the Politics of Persecution." *JJQ* 46.1 (Fall 2008): 75-95.

Stanzel, F.K. "All Europe Contributed to the Making of Bloom: New Light on Leopold Bloom's Ancestors." *JJQ* 32.3-4 (Spring and Summer 1995): 619-630.

Steinberg, Erwin R. "James Joyce and the Critics Notwithstanding, Leopold Bloom is Not Jewish."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9 (Winter 1981-1982): 27-49.

\_\_\_\_\_. "Reading Leopold Bloom/ 1904 in 1989." *JJQ* 26.3 (Spring 1989): 397-416.

**Abstract****Bloom as a Jewish Other on the Border**

Dauk-Suhn Hong

This article discusses the anti-heroic protagonist Bloom as a Jewish other in *Ulysses*, who stands on the position of the racial-ethnic border between the Irish and the Jewish. From the beginning of the publication of *Ulysses*, Bloom's ambiguous Jewish identity has been one of the major controversial discussions among the Joycean scholars. While the early Joycean scholars has, on the whole, accepted what Joyce said about Bloom's Jewishness and developed their interpretation of *Ulysses* on the ground of it, some of the later scholars raised a serious questions about it. They have argued that Bloom is not Jewish by religious, anthropological, and social criteria. Against these arguments, this study emphasizes Joyce's intentional ambiguity of Bloom's Jewish identity, which generates the metaphoric significance of the modern wandering Jew in the post-colonial context of *Ulysses*.

Like all important modernists whose works address postcolonial questions, Joyce was critical of the constraining oppressive constructs of selfhood that arouse from both colonial subjugation and the ethnoracial-nationalist programs that reacted against it. In confronting this binary, Joyce became interested in the interstices of racial, ethnic, gender, and nationalist identity. In his choice of the assimilated Irish jew as a hero of his work, he depicted the marginal ambiguous Jew as a trope for the doubly-colonized subject. In the "Cyclops" episode, Bloom's ethnic identity was portrayed as the non-Irish Irishman as well as the non-jewish jew. The doubleness of his identity positions him as a socially marginal victim and scapegoat in the Catholic/nationalist community of Ireland as shown in the "Cyclops" episode.

■ **Key words** : James Joyce, *Ulysses*, “Cyclops,” jew, judaism, identity, border, other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키클롭스」, 유대인, 유대주의, 정체성, 경계, 타자)

논문접수: 2010년 5월 20일

논문심사: 2010년 6월 5일

게재확정: 2010년 6월 15일